

과외 구하기 Tip

&

성공적 과외 Tip

2021. ver

1. # 프롤로그

- 필자의 과외 입문기
- 왜 우리는 과외를 해야하는가?

2. ♪ 너와 나의 연결 고리 이걸 울의 한의 성의

- 과외 구하는 곳
- 과외 사이트 소개글 (+첨삭)
- 과외 구하는 시기

3. 🤝 널 놓치고 싶지 않아

- 전화상담 요령
- 시범수업
- 폐이 결정
- 학생과 강사의 궁합

For All

Bonus Track 1. 과외추천교재

Bonus Track 2. 등급별 수학공부법 (교수법)

Bonus Track 3. 개정교육과정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 학생편

Bonus Track 4. 개인 제작자료의 중요성?

Bonus Track 5. 과외 vs 학원 vs 독학

자료 읽는 법)

본 자료는 **학생(학부모)에게 도움될 말**과 **대학생(강사)에게 도움될 말**이 색깔로 구분되어 있다.
(공통적으로 도움될 말은 검은색으로 표시된다.)

하지만 본인이 대학생(강사)라고 해서 파란색 글씨를 안읽는 건 본 자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서로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했을 때 최고의 궁합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전문을 다 읽어보시기 바란다.

조언)

본 자료는 양이 꽤 된다. 그래서 읽다가 포기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괜찮다. 말리지 않겠다. 근데 감히 한 가지 조언을 하자면, 이 정도 시간도 투자 하지 않을꺼면
과외는 못한다고 봐야한다. 대학생 때의 과외는 수업 시간만큼 준비 시간이 들어가 정상인데,
1~2시간도 안될 시간을 투자 못하고 '세줄 요약점크' 하는 태도로는 과외라는 막중한 임무를 해낼
수 없다. 학생들은 반드시 이 자료에 들어있는 요건을 갖춘 강사에게만 수업을 받길 바란다.

강사 선택하는 법)

간혹 학부모님께 이런 질문을 받는다. '선생님은 하위권이던 시절 있으신가요?'
이 질문의 이유는 뭘까? 우리 아이가 하위권이라, 하위권에서 최상위권이 된 경험이 있는 선생님을
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위권의 마음은 하위권이 제일 잘 아니까, 무엇에선가 막혀있는데 그걸
뚫어본 사람을 구하는 것일 거다.

음, 일리가 있어 보이지만, 맞는 말 일리가 없다. (라임 지림, 라임 질임, 이것도 라임 지렸다.)

15살 때 부터 수학을 잘하여 8년 동안 노하우가 축적된 23살 A와
19살 때 까지 수학을 못하다가 21살 때부터 수학을 잘하여 2년 동안 노하우가 축적된 23살 B를
B교해보자.

다년간 노하우가 축적되고 여러 학생들을 가르쳐 본 A는 하위권 역시 많이 가르쳐봤을 것이다.
학부모가 원하는 '하위권에 대한 이해도'는, 직접 본인이 경험 및 극복해보지 않아도 다수의 수업
등의 간접적 경험으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각 학생 성향별 어울리는 선생님 스타일은 뒤에서 다뤄보도록 하겠다.

1. # 프롤로그

- 필자의 과외 입문기

어렸을 때부터 수학을 좋아했고, 어쩌면 수학선생님이 내 직업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며 학창시절을 지냈다. 중학생 때부터 수학에 자신 있었으며, 특유의 사교성으로 친구들에게, 심지어 동아리 선배들의 수학문제를 풀어주는 것을 좋아했었다.

당연히 남들처럼 고3 끝나고 명문대를 가서 과외를 할거라 생각했던 필자는 재수를 하게 되고, 우여곡절 끝에 고려대학교 수학과에 진학하게 된다.

하지만 과외 시작은 쉽지 않았다. 고2 때 한 전학(울산→서울)으로 인해 서울의 인맥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한 지역의 토박이의 경우 좋은 대학을 가는 순간 그 지역 내에서 (적어도 아파트단지 내에서) 유명해져서 과외가 잘 잡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는 쉽지 않다.

그럼 어떻게 과외황이 되었는가? 왜 나는 군대에 있을 때마저 ‘과외 어디서 구하셨는지 새내기들이 궁금해하는데 조언좀 해주세요.’라는 동 구원 요청을 솔하게 받았는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자.

- 왜 우리는 과외 해야하는가?

복습하자. 학생(학부모)에게 도움될 말과 대학생에게 도움될 말이 색깔로 구분되어 있다.

과외의 최고 장점은 무엇일까? 높은 시급? 아니다. '익숙한 것'을 한다는 게 제일 큰 장점이라 생각한다. 우리는 짧게는 1년, 길게는 중고딩 6년 동안 내신 또는 수능을 준비해왔다. 즉, 지금 당장 우리가 제일 잘 할 수 있는건 공부다.

전단지 알바, 카페 알바, 피시방 알바 등 타 알바를 하려면 '우리가 못하는 것'을 배워서 하는게 많은데 과외는 '우리가 잘하는 것'을 그대로 하면 된다는 것이 제일 큰 장점이 되겠다.

명문대가 아닌 일반 대학생들에게도 시급 2만원 이상을 주는 과외는, 학원비에 비해 분명 비싼 수업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과외를 하는 이유는 본인의 약점을 빠르게 파악하고 싶음에 있다. 대형수업의 속도를 따라가기 위한 보충과외, 빠르게 약점을 손보고 싶은 단기과외 등이 있다.

많은들 '과외만 하면 수능 성적 오지게 오르겠지?' '수능 만점한테 과외 받으면 나도 만점 각?' 라고 착각한다.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다.

학생과 강사는 각각 '기본 속력'과 '부스터'으로 비유된다.

(벡터 외적으로 비유하면 괄쌌한데, 문과친구들을 위해서... ㅠㅠ)

좋은 강사일수록 좋은 부스터, 즉 차에 정확한 방향과 곱가속도를 제공한다.

근데 학생이 기본속력을 0으로 잡아버리면, 아무리 좋은 곱가속도를 갖고 있는 차도 앞으로 나아가질 않는다. 아래에 좋은 예시 짤이 있다.



수익 0원에서 수익이 100배만큼 오르신 ???씨

따라서 학생은 본인이 오롯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을 때 구하도록 하자.

